

**<186호에 계속>  
6. 전립선암**

근래 전립선암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프랑스의 미테랑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으로 여러해 동안 투병을 하면서도 대통령 임기를 무사하게 마쳤으나 끝내는 이 병으로 타계했다는 뉴스, 금년 91세의 중국의 동소평은 벌써 오래 전부터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중국정치의 배후에서 건재하면서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뉴스, 그와 반대로 이미 사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뉴스, 중동(만안(灣岸) 전쟁, 이라크 사태)의 명장 미국의 슈워츠코프 장군도 전립선암에 걸려 있다는 사실, 노벨상 수상자 일본인 유가와 히데끼의 사인이 전립선암이었다는 사실 등등 심심치 않게 전립선암에 관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닌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장래가 촉망되었던 모정치인이 이 병으로 타계하자 모두 이를 아쉬워했던 일이 있었다. 이렇고 보니 전립선암은 마치 정치인이나 유명인사에 집중적으로 오는 것 같은 인상을 줄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비교적 많은 매스컴을 타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 뿐이다.

저자는 서울대병원 재직시 24세의 젊은이에게서 전립선암을 발견하였으나 만 7년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비교적 안락하게 생존하였던 예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립선암은 관리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암과는 달리 비교적 치명적이 아닐 때가 많다.

**(1) 전립선비대증이 암으로 변하는 일은 없다.**

비대증이 심하면 암으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나, 이것은 확실히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발생기전은 전연 다르지만 비대증과 암이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또 암의 발생

연령이 60세 이후이기 때문에 이미 비대증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석하면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매년 그 발생 예가 늘어가고 있으며, 일본등에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적으나, 식생활의 서양화, 특히 동물성 지방섭취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전적으로는 같은 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환경이 바뀌면서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변화하는 것은 환경요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남성 암 중에서 단연 전립선암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생활 환경 특히 식생활 여건의 서양화 경향에 따라 전립선암의 발생 빈도는 점점 늘어날 소지가 많다. 참고로 세계에서 전립선암이 제일 흔한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흑인, 다음은 유럽과 미국의 백인, 그 다음이 이곳의 백인 이외의 인종, 제일 적은 것은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하와이에 거주하는 동양사람들의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본국 거주 사람들의 9배나 된다고 하니, 환경변화가 전립선암의 발생률을 놀랄 만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기혼자보다도 미혼자에게 전립선암이 더 많다고도 하나, 섹스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2) 아무 증상없이 전립선암은 시작된다**

암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여도 아무 자각 증상없이 정상생활을 한다. 전립선비대증에서는 초기의 자극증상이라도 나타나지만 암의 경우는 아주 정상적인 배뇨기능을 유지한다.

전립선암은 50세 이후에서 발생하고 대개는 60대가 되어 흔하게 되는 병이며, 이미 이 연령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된

**전립선의 초기 암은 손가락을 사용한 촉진, 초음파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의 혈청내 수치로 진단이 가능하다. 전립선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신기능 검사, CT 검사, MRI 검사 또는 골의 핵의학 검사등이 필요하게 된다.**

전립선비대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우연히 전립선암도 발견되는 예가 많다. 하지(下肢)나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진찰을 받고 린트젠 사진을 찍어 보니 골격에 암의 전이가 이미 되었고, 이의 원발 병소를 찾아보니 이것이 전립선암이었다라 하는 일은 종종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 증상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전립선의 초기암보다는 이미 전이가 일어난 진행된 전립선암을 보는 일이 훨씬 많다.

이미 전이를 일으킨 전립선암은 뾰족한 치료방법이 없고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기 암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발견될 때는 이미 전이가 진행되어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나 종합진단에서 전립선암이나 비대증에 관한 관심이나 고려가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 위암, 자궁암 등에 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정기 검진, 조기 진단, 적기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2020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증가가 지금의 160%가 되고 그의 과반수가 전립선비대증을 가질 것이라는 통계적 추정을 보더라도 전립선 검진에 관하여는 국민적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이다. 형식적으로 끝나는 건강진단이 아니라 한 두 가지 검사만 더하면 전립선암이나 비대증을 미리 진단할 수 있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하겠다.

**(3) 전립선암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립선암은 발생 초기에는 주목할 만한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다는 것이 초기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암은 전립선주변부(직장을 통하여 손가락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부

위)에서 시발하는 것이 약 75%이므로, 일반 진찰이나 건강진단 때 직장촉진만 세밀히 하면 발견될 수 있다. 경험있는 비뇨기와 전문의가 이러한 초기암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75~80%이다.

즉, 전립선 주변부에서 특이한 전립선의 탄력성과 고무와 같은 촉감과는 달리 딱딱하(때로는 돌과 같이 단단하다)게 만져지는 경결(硬結)이 있으면 거의 틀림없는 전립선암이다. 1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자세하게 만져보는 성의가 이 중대한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여 보자. 어쩌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립선 주변부 이외의 부위, 즉, 중앙부와 이행부에 발생하는 25%의 초기암은 손가락 촉진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손가락에 안 잡히는 암을 진단할 수 있고, 또 손가락에 촉진된 경결도 초음파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침생검(針生檢)하면 조직학적 확진을 얻을 수 있다.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중앙부 커(指標)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전립선특이항원(PSA)이라고 부르는데 전립선암이 되면 혈청속의 이 물질이 정상치보다 많이 측정된다. 또 암이 진행될수록 이 수치는 높아질 것이고 치료에 따라서는 반대로 이 것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암의 진행정도, 또 재발여부등은 이 수치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전립선의 초기 암은 손가락을 사용한 촉진, 초음파검사, 전립선특이항원의 혈청내수치로 진단이 가능하다. 전립선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신기능검사, CT검사, MRI검사, 또는 골의 핵의학검사가 필요하게 된다.

**<6면에서 계속>**

**700국 음성정보(각 성인병 분야총망라) 안내**

◎본협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성인병예방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사업으로 음성정보를 개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인병질환의 예방 및 치료관리대책 등을 전문학자로 하여금 직접 녹취하여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많은 국민이 성인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700국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종목(병류)**

**대표전화 700-6939**

- |          |             |                             |               |                   |
|----------|-------------|-----------------------------|---------------|-------------------|
| 1. 고혈압   | 10. 유암(유방암) | 19. 간경변증                    | 26. 기관지천식     | 35. 소아폐질환         |
| 2. 당뇨병   | 11. 혈액암     | 20. 류마로이드 및 만성퇴행성관절염        | 27. 폐기종       | 36. 성인병운동요법       |
| 3. 동맥경화증 | 12. 대장암·직장암 | 21. 골조송증(골다공증)              | 28. 기관지확장증    | 37. 성인병 식사요법      |
| 4. 심장병   | 13. 췌장암     | 22. 비만증                     | 29. 간질성폐질환    | 38. 노인성질환         |
| 5. 암 개요  | 14. 후두암     | 23. 소화성궤양                   | 30. 갱년기정신신경장애 | (순환기·치매·신경계·우울증)  |
| 6. 위암    | 15. 암치료법    | 24.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포함) | 31. 소아고혈압     | 39. 비뇨기계질환        |
| 7. 간암    | 16. 갑상선질환   | 25. 기관지염                    | 32. 소아당뇨병     | (전립선암·전립선비대증·방광염) |
| 8. 자궁암   | 17. 뇌졸중     |                             | 33. 소아정신장애    |                   |
| 9. 폐암    | 18. 만성신장병   |                             | 34. 소아비만증     |                   |

※각 질환별 일부와 정보제공이 안되는 것은 단시일내에 제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면에서 계속)

7.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전립선증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을 비롯하여 전립선 자체의 질환 또는 그의 부위 근처, 방광 경부의 이상으로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총칭하여 전립선증이라고 한다.

- (1) 만성전립선염
- (2) 전립선통증
- (3) 방광경부수축증(膀胱頸部收縮症)

를 찾는 기회가 많을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암의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으므로 전립선검진은 도리어 암의 조기 발견에 역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도 주장하는 측도 있다. 그러므로 전립선비대증에 역점을 둔다면 50세부터의 검진이 바람직하지만 암에 역점을 둔다면 40세부터의 검진도 의미가 있다. 검진효율과 기타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 한 가지의 검사(예: PSA측정)라도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있다.

# 전립선암-조기발견이 중요

- (4) 요도협착
- (5) 신경근육성 방광기능장애

8. 전립선 금지

(1) 전립선검진은 몇살부터 필요한가

일반의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주변에서 비대증과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직접 대할 기회가 늘고 있다. 또 전립선비대와 암의 조기 발견은 노력만 하면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립선비대증과 암의 검진이 아직도 체계화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몇살부터가 대상이 될 것인지 정하기 힘들다. 치료를 요하는 비대증은 40대에서 이미 2~3%의 빈도로 나타나지만 암은 이와는 달리 매우 드물다.

(2) 전립선의 초기암 진단법

또 비대증의 경우는 배뇨장애라는 명백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비뇨기와 전문의

(3) 검진시 최소한도의 검사항목

- ① 문진과 I-PSS 작성  
시간이 허용하는 한, 의사와 피검사와의 직접 대화가 있으면 더욱 좋겠다. 배뇨에 관한 구체적인 증상이나 어려움을 듣도록 한다.
- ② 직장촉진  
전립선병변 발견을 위하여 절대적인 기본검사이다. 세 가지 중 하나만을 할 수 있다면 직장촉진을 하여야 한다. 비뇨기과 전문의가 스스로 지니고 다니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진단 기구이다. 경직장초음파진단법 경북부 초음파진단은 경직장에 비하여 그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므로 경직장초음파진단을 택함이 좋다.
- ④ 종양 마커  
최근에는 감도가 높은 PSA를 주로 사용한다. 직장촉진 + PSA로 전립선암 발견율이 매우 상승한다.
- ⑤ 요류 측정  
이상 세 가지 검사외에 요류 측정으로 전립선비대증의 진단이 가능하다.

<끝>

I. 개요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병인가?

퇴행성 관절염은 일명 골관절염 또는 퇴행성 관절질환이라고도 불리우며 중년 혹은 노인에게 주로 발생되고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일어나는 국소적 관절염이다. 정상적인 젊은 사람의 관절연골, 물렁뼈는 매끈하며 윤기가 있고 탄력성이 있는데 반해 퇴행되면 거칠거칠하게 변하고 윤기가 없어지고 광택이 없으며 골 가장자리에서 작은 새뼈가 생겨나 활막이 이차적으로 자극되어 관절염을 일으킨다.

류마티드 관절염과 다른점은 류마티드 관절염이 일차적으로 손, 발의 작은 관절의 여러 관절의 활막에 염증이 일어나고 관절염이외에도 미열, 빈혈 등 전신증상, 눈의 홍채염, 동맥염 등이 나타나는 전신질환이고 동통이 심한데 비하여, 퇴행성 관절염은 일차적으로 관절연골의 퇴행에 의해 나타나는 전신적인 증상은 없이 국소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병이며 몸을 지탱하여 주는 다리의 큰 관절에 흔히 발생하고 동통이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고관절, 무릎관절이나 발목관절 등 체중부하관절에 많이 발생하고 또 한 손가락의 말단관절에 흔히 발생하는데, 특히 50세 이후 폐경기 여성에서 손가락 말단관절이 단단하게 비대하여 지는데 이것을 헤버덴 결절(Heberden's node)이라고 부른다.

퇴행성 관절염은 장거리 보행을 하거나 많이 쓰면 아프고 부으며 관절내에 물이 고이기도 하고 안정하여 휴식하면 동통과 부은 것이 가라앉는 것이 특징이다. 이 관절염은 확실한 원인없이 퇴행변화가 일어나는 원발성관절염과 어렸을 때 관절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다쳐 골절등이 있을 때 마찰이상으로 나타나는 이차성관절염으로



박병문 교수

<연세의대 정형외과>

구분한다.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만성 관절염으로 60세 이후에는 여성의 25%, 남자의 15%가 퇴행성 관절염과 관계있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

II. 원인

아직 정확한 원인은 불명하지만 선행되는 소인은 다음과 같다.

**연령:** 퇴행성 변화는 중년까지는 분명치 않으며 일반적으로 55~65세 연령층의 85% 정도에서 엑스선 사진상 관절염의 근거가 보인다.

**성별:**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특별한 차이는 없으나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에 많고 정도도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유전:** 역학조사에 의하면 약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유전전달과정은 모른다.

**비만증:** 비만증인 사람에서 정상인에 비하여 두배정도 많고 주로 다리의 체중부하관절에 나타난다.

**침범부위:** 50대 중반이전에는 남녀간 차이는 없으며 그 이후에는 여성에서 손가락의 말단관절에 많고 남자는 주로 고관절에서 본다.

**기타 자극요인:** 관절요인에 손상을 주어 이차성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요소로는 외상, 기형, 어떤 관절질환 등이 원인이 되는 것이며 젊은 사람에게도 발생한다.

# 만성 퇴행성관절염의 개요

# 맨파오

中國皇室秘方 生藥 31種

鹿茸 廣狗腎 黑驢腎 當歸 人參 仙茅 菟絲子 補骨脂 桂枝 仙茅 菟絲子 補骨脂 淫羊藿 胡蘆巴 巴戟天 肉蓯蓉 鎖陽 續斷 熟地 黃 覆盆子 山藥 附子 枸杞子 玄參 黃耆 白朮 炮附子 茯苓 麥門冬 牛膝 甘草 山藥 黃耆 茯苓 麥門冬 牛膝 甘草



• 표준소매가격: 40칸셀/30,000원, 120칸셀/80,000원  
• 문의처: (02)464-0861, 학술부

맨파오는 이미 중국에서 男宝라는 이름으로 큰 호평을 받고있는 대표적인 자양강장제로 신화(腎虛)를 보(補)하는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배합되어 있으며 옛부터 중국황실에만 전해져 내려오는 비방(秘方)과 중국의학 및 동양의학 사상에 근거를 둔 처방으로 중년기 이후 쇠약해지기 쉬운 기력 및 활력 증상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 '맨파오'란 男宝 무엇인가?

'맨파오'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심으로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 자양강장제입니다.

수입·판매원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408

제조원  
日本·田辺製藥株式会社  
日本 大阪

제약원  
中國天津市力生製藥廠  
中國天津市南開區黃河道 491 号